2026 상명대학교 연극전공 단막극제작실습(PBL)

주최 상명대학교 예술대학 주관 상명대학교 예술대학 연극전공

Riders to the Sea

# 바다로 가는 기사들

작
존 밀링턴 싱

번역
송옥

연출·조명
고경민

드라마투르기·음향·기획보
이자람

무대감독·무대·소품
임별

기획·의상
김태희

출연
김가은
김서영
김승재
박제노
양은서
우수린
정주희

지도교수
김정섭

**2026.12.03. - 2026.12.05.**

**(목·금) 7PM - (토) 3PM**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계당관 S109**

연극예술로 피어나는 지역 상생 문화예술 프로젝트 바람+ 연극~

*본 공연은 도서출판 동인의 <영국단막극선집> 텍스트 사용 허가를 받아 편집 및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작가 소개



## 존 밀링턴 싱

존 밀링턴 싱(John Millington Synge, 1871~1909)은 더블린 교외에서 태어난 영국과 아일랜드의 극작가이다.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성직자를 준비하며 아일랜드 민속에 흥미를 갖고 갤릭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했으며, 아일랜드 왕립 음악원에서 바이올린과 음악 이론, 작곡을 배우고 1893년에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 음악 공부를 이어 갔다. 1896년 파리에서 문학 비평을 하던 그는 아일랜드 극작가이자 시인인 W. B. 예이츠의 권유로 1898년 5월 아일랜드 서쪽의 아란 섬을 처음 찾아 도민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이후 1902년까지 여름마다 섬을 방문하며 아란 섬 노트를 남겼고, 이때의 경험은 <계곡의 그늘>, <바다로 가는 기사들>의 배경이 되는 등 그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04년 그레고리 부인, 예이츠와 함께 아일랜드 문예 부흥 운동에 앞장서며 애비 극장의 운영 위원으로 합류해 <성자의 샘>, <서부의 플레이보이> 등을 선보였으나, 풍자와 부친 살해 요소로 인해 <서부의 플레이보이>는 한 차례 폭동을 겪었다. 이후 <땜장이의 혼례>의 상연이 보류되었고, <데어드리의 슬픔>을 집필하던 중 1909년 3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우진, 김유정 등 우리나라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그는 아일랜드의 정체성과 인간의 삶을 탁월하게 탐구한 아일랜드 근대 3대 극작가로 평가받는다.

# 작품 소개

<바다로 가는 기사들>은 1904년에 집필된 희곡으로, 존 밀링턴 싱이 직접 경험한 아란 섬을 배경으로 한다. 연극사에서 가장 위대한 단막 비극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작품은 아일랜드 아란 섬에 사는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다. 생존을 위해 바다로 나아가지만 끝내 시신이 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오는 남성들, 그리고 그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이 극을 이룬다. 집 안에 모인 가족의 시선으로 바다 앞에 선 인간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담아낸다.

모리아, 캐스린, 테미아, 노라는 똑같은 죽음을 수없이 겪어 왔기에 바틀리 또한 바다로 나가면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바다 없이는 모두가 죽음을 맞게 될 것이기에, 모리아는 결국 바틀리를 바다로 떠나보낸다. 이미 남편과 아들들을 바다에 내어 준 이들에게 바다는 원망의 대상이기 전에 삶을 이어 주는 유일한 터전이다. 죽음을 알면서도 삶을 위해 같은 선택을 되풀이하는 아란 섬 사람들의 모습은 삶과 죽음의 아이러니를 보여 주며,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죽음을 받아들이는지 묻는다.

# 연출

고경민



삶은 순환한다.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상실, 그리고 다시금 살아냄.

삶이란 살아가는 것인가, 살아내는 것인가?

바다로 떠난 기사들을 모조리 잃은 모리아의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상실 그 자체보다, 상실을 받아들인 이후의 인간은 어떠한지 바라보고 싶었다.

모리아는 오랫동안 죽은 이들과 죽음에 매달려 있었다. 마지막 아들까지 바다에 잃은 뒤에야 그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벗어나 곁에 남은 이들과 앞으로를 살아낼 의미를 찾아낸다.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나 포기와 같은 수동적 태도가 아니다. 운명을 마주하고 수용하며 앞으로의 삶을 그려 가는 능동적 태도이다. 삶이라는 흐름에 떠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모리아의 강인함은 바다와 맞서 이기는 힘이 아니라, 이 수용 위에서 다시 삶을 쌓아 올리는 힘이다.

파도는 물러가고, 또 밀려온다. 삶도 이처럼 이어진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낸다. 거친 파도가 또다시 휘몰아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

# 드라마투르기

이자람



삶을 영위하기 위해 죽음을 향해 투신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20세기 초 아란섬 사람들에게 바다는 생계의 터전이자 가족을 집어 삼키는 괴물이었다. 그 모순을 견뎌 내는 일이 그들에겐 운명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운명은 그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저마다의 바다로 나서야 하며, 그곳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을 위해 나아간다. 운명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가 몸소 겪고 있는 현재형의 단어다.

<바다로 가는 기사들>의 모리아는 처음에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남편과 아들들을 차례로 바다에 잃고도, 마지막 남은 아들만큼은 붙잡으려 한다. 굴러가는 수레바퀴를 외면하고, 그 위로 덮쳐 오는 더 큰 파도를 못 본 체하며 삶을 버텨 낸다. 그러나 바틀리마저 바다에 삼켜진 순간, 모리아는 오히려 담담해진다. 이제 바다가 더 앗아갈 것이 없다는 깨달음은 체념이 아니라 수용이다. 모리아에겐 수용이란, 낭떠러지로 향하던 수레바퀴를 붙잡아, 스스로 이어지는 길 위로 굴려 내는 것과 같다. 그것은 운명을 이기는 몸짓이 아니라, 운명 앞에 서는 법을 선택하는 몸짓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수용해야지만 비로소 운명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받아들이는 것 역시 목적지로 향하는 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수용 또한 운명의 일부일지라도, 그 안에는 나의 개입이 들어간다. 그 선택의 순간만큼은 오롯이 나의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 위에서, 어떤 파도와 맞서며 수레바퀴를 굴려나가고 있는 것일까?

바틀리 役 — 박제노



모리아 役 — 정주희



캐스린 役 — 김서영



테미아 役 — 김가은



노라 役 — 양은서



신부 · 사내 役 — 김승재



여인役 — 우수린



연출 · 조명 — 고경민



무대감독 · 무대 · 소품 — 임별



드라마투르기 · 음향 · 기획보 — 이자람



기획 · 의상 — 김태희



# 예매 안내

- **티켓 오픈**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13시

- **티켓 마감**

  2026년 11월 15일 일요일 21시

- **예매 방법**

  구글폼 및 현장 예매

  본 계정 프로필 하단 링크 접속 후 구글폼 작성

*** 회차당 1인 4매 제한**

- **문의**

  공연기획단 Instagram (@smu_theair) DM

# 예매 안내

- 본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구글폼 사전 예매 및 현장 예매로 진행됩니다.
- 사전 예매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회차당 1인 최대 4매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 예매 마감 후 확정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며, 메시지를 수신해야 최종 예매가 확정됩니다.
- 전 좌석 비지정석으로 운영되며, 현장에서 자유롭게 좌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취소표 및 잔여 좌석 발생 시 공연 당일 티켓 부스에서 현장 예매가 가능합니다.
- 현장 예매 좌석 수는 공연 당일 공연기획단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안내됩니다.

# 관람 안내

- 본 공연에는 죽음과 관련된 내용 및 곡소리 등 자극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니 관람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연의 러닝타임은 약 60분이며, 인터미션 없이 진행됩니다.
- 티켓 수령 및 현장 예매는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가능합니다.
- 객석 입장은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 공연장 내에는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 반입이 제한됩니다.
- 공연 관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지품은 물품보관소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연 입장이 불가하므로 공연장에 여유롭게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 시작 전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 시작 후 퇴장 시 재입장이 불가합니다.
- 빈 무대 및 커튼콜 촬영을 제외한 사전 협의되지 않은 촬영 및 녹음은 금지됩니다.

# 현장 이벤트

**“나에게 운명이란?”**이라는 질문에 의견을 남겨주신 관람객분들께

**<바다로 가는 기사들> 볼펜**을 증정합니다.

- **증정 수량**

  회차당 10개

- **진행 장소**

  티켓 부스

- **참여 방법**

  “나에게 운명이란?” 질문에 대한 의견 작성

  티켓 및 의견 작성 여부 확인 후 볼펜 수령

- **유의사항**

- 본 이벤트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참여는 티켓 수령 후,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가능합니다.
- 공연 회차와 관계없이 1인 1회 참여로 제한되며,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